

# “오늘 저희 결혼합니다”

### 송중기·송혜교, 톱스타 부부 탄생 결혼식 절차 일체 비공개로 진행

10월의 마지막 날 백년가약을 맺는 톱스타 송중기(32·사진 왼쪽)-송혜교(35)의 결혼식이 간단한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철통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이후 석달여 대중의 높은 관심 속 결혼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결혼식 날짜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썬엔터테인먼트와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7월5일 오전 6시30분 “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돼 오는 10월 마지막 날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예약장과 예식 시간을 비롯해 주례와 사회, 축가, 신혼여행 등 결혼식과 관련해 대중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청첩장이 돌러지고 결혼식 절차와 하객에 관해 하나둘 입소문이 나면서 인터넷에 관련 보도가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중국 언론도 가세했지만 소속사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30일도 양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소속사에서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스타들도 대부분 비공개 속에 결혼식을 치르지만, 결혼식 관련 제반 사항은 문이 들어가면 소속사는 확인을 해줬다. 하지만 송중기-송혜교 측은 말을 아끼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한다. 또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에도 결혼식에 앞서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고 포토타임을 갖는 스타들이 많지만, 송중기-송혜교는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두 스타가 너무 많은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할 필요는 없지만,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모두 대형 스타이고 ‘비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기본적인 사항은 공유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중기-송혜교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연합뉴스



#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 사망

### 영동대로 인근서 차량 전복 후 화재 ‘싱글즈’ ‘무신’ 등 다수 출연해 인기

30일 오후 4시 29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인근 아파트 옆 도로에서 배우 김주혁(사진)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씨가 탄 벤츠 차량이 사고로 전복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후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은 데뷔 20년 차의 중견 배우다.

1972년생인 김주혁은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데뷔 당시 고(故) 김무생의 아들로 주목받았으나 다양한 작품에서 그만의 연기세계를 구축하며 연기파 배우로서 자리매김했다.

영화 ‘싱글즈’(2003), ‘광석이 동생 광태’(2005), ‘청연’(2005), ‘사랑따윈 필요없어’(2006), ‘아내가 결혼했다’(2008), ‘방자전’(2010), ‘비밀은 없다’(2016) 등 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매력을 선보이며 팬층을 확보했다.

올 초에는 영화 ‘공조’(2017)와 ‘석조주택 살인사건’(2017)에서 악역을 선보이며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했다.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2005), ‘무신’(2012), ‘구암 허준’(2013) 등 안방극장에서도 팔색조 연기를 펼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tvN 월화극 ‘아르곤’에서 액터 김백진 역을 맡아 HBC의 탐사보도팀 ‘아르곤’을 이끌며 호평을 받았다.

김주혁은 올 초 연남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저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잘 못 한다. 가식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도 싫어한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남한테 아부하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며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주혁은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TV 예능프로그램에도 도전했다. 2013년 12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합류해 2년간 ‘구멍이 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가 2년 만인 2015년 12월 자진 하차했다.

그는 끊임없이 연기에 고민하던 배우였다. ‘아르곤’ 이후 인터뷰에서 “최근에 연기의 참 재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이리 가는 게 맞나?’ 고민했던 면이 이제는 ‘저쪽에 내 먹을거리가 많겠구나’ 정도는 알겠더라. 그런 느낌이 든 지 한 2~3년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주혁은 올 초 17살 연하인 배우 이유영(28)과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연합뉴스

#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찰” 정준하, 악플러 고소 취하

연예계가 악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정준하(46·사진)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정준하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고소에 관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고소 진행을 멈추고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됐던 방송 캡처도 차분히 다시 보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정말 저러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른스럽지 못했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준하는 인터넷에 과거 자신의 방송 장면을



캡처해 악성글과 함께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

그는 당시 “근거 없는 비난과 헐뜯, 욕설에 대해선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준하는 이날 올린 글에서는 “당시 제가 올린 즉흥적인 심경글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많은 분들께 질책을 받았다. 제 부족함으로 불쾌하셨거나 실망하셨을 분들께 먼저 죄송

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시정자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관심은 당연하게 여기고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에 악플러 고소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저에게는 부족한 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날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준하는 “이번 일로 저에게 크게 실망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용서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성실한 태도로 여러분께 웃음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디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재) 50 UHD 한식	50 생생정보 스페셜	00 TV속의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재)	00 특선다큐 고등교육의 그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쟁	00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30 열로키즈 동물교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제24회 한진 음악콩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25 수빈스토리 2 55 통일전망대 (재)	00 뉴스브리핑
2	40 감성투 고맙습니다 2 스페셜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00 2017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3	00 4시 뉴스집중	00 영상앨범산 (재) 3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리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4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사람 3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빅 히스토리 마한 스페셜	0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5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고평지락
6	00 KBS 뉴스 7 35 화순 국화축제 축하쇼 청량	30 글로벌24 55 1대 100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7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00 사랑의 온도
8	00 KBS 뉴스 9 4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다큐 빙판 위의 우생순	10 철부지 브로망스-윙피클럽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0 불타는 청춘1~2부
9	35 KBS 뉴스라인	35 영화가 좋다 (재)	40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10	0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1	00 다큐 공감 (재) 55 국악한마당 (재)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우주탐험가 챗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15 꼬마기사 마이클	19:55 극한직업
<갈의 역사	10:30 한국기행(재)	15:30 오드뎬. 이상한 아이들	<인도네시아 동물 사냥꾼
-13억의 요리칼, 차이다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제비집 채취>
06:00 한국기행(재)	<무말랭이김치	16:00 얼마 깨두리	20:40 다국어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팬이버섯 달걀국>	16:15 두다다공	<화산을 오르는 집꾼 부부>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흥분이(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인생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07:45 출동! 슈퍼왕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 열을 발 방어의 호수>
08:00 덩동영 유치원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21:30 한국기행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방귀대장 흥분이	13:40 성년 롤기(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00 몬카트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9:15 소피 루비	-마루의 어드벤처(중방)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9월 12일 辛卯)

<p><b>子</b> 48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듣지 않는 법이다. 60년생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72년생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겠다. 84년생 넘어가려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b>행운의 숫자</b> : 54, 73</p>	<p><b>午</b> 42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54년생 생각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66년생 확실히 승세를 굳힐 수 있다. 78년생 더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90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59, 26</p>
<p><b>丑</b> 49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61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85년생 굳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b>행운의 숫자</b> : 15, 19</p>	<p><b>未</b> 43년생 앞뒤 재지 말고 기탄없이 행하라. 55년생 체계와 질서에 따라야 만이 순조로움을 부르리라. 67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79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91년생 애석하리라. <b>행운의 숫자</b> : 37, 67</p>
<p><b>寅</b> 50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62년생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74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86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쾌거가 있다. <b>행운의 숫자</b> : 01, 11</p>	<p><b>申</b> 44년생 다 된 마당에서 마무리가 시원찮을까 두렵다. 56년생 다양한 방법의 계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68년생 표면만 보아도 내 용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51, 27</p>
<p><b>卯</b> 51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3년생 속고해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로다. 75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쥐야 할 형국이다. 87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겠다. <b>행운의 숫자</b> : 69, 33</p>	<p><b>酉</b> 45년생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7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 69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96, 79</p>
<p><b>辰</b> 52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니라. 64년생 주도면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76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88년생 균형을 메운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81, 07</p>	<p><b>戌</b> 46년생 나이가면 풍성하게 얻으리라. 58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자. 70년생 흥왕의 기운이 남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82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b>행운의 숫자</b> : 62, 14</p>
<p><b>巳</b> 53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라. 65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다. 77년생 주변의 여건에 좌우되거나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89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b>행운의 숫자</b> : 75, 17</p>	<p><b>亥</b> 47년생 흥기는 끝났을 때 짜아하고 슬은 끝 때 걸려야 하느니라. 59년생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일단인하고 불일이다. 71년생 시일을 끌어 왔던 바가 완성되어가는 동시에 와 있느니라. 83년생 실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b>행운의 숫자</b> : 86, 5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